

드론산업 장기발전계획 추진방향 모색

전주시·캠틱종합기술원, K-드론 선도도시 구축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가져

전주시가 K-드론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강화한다.

전주시와 (사)캠틱종합기술원은 13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 1층 첨단누리홀에서 드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드론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정부의 K-드론 육성정책에 발맞춰 ▲전북대학교 ▲세종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북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주)대한항공 ▲(유)비아 ▲(주)테라리스 ▲(주)우리아이오 ▲DN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렸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추진 경과와 드론산업 장기발전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9월까지 이어질 자문회의의 일정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시는 캠틱종합기술원은 다음 달 5일 K-드론 선도도시 TF 포럼을 열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차두원 소장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단장이 ▲드론 및 UAM(도심항공모빌리티)·PAV(개인용 자율항공기) 산업 동향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 설정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와 (사)캠틱종합기술원은 13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 1층 첨단누리홀에서 드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드론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각종 지원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혁신적인 드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주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 내에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조성 중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수송·교통 분야 신시장이자 교부가 가치 산업인 UAM·PAV 산업을 주도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드론축구를 통해 세계 드론 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듯이 미래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사업인 UAM을 선도할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신성장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외국인 노동자 위한 쉼터 제공

전주시, 4000만원 투입 내달 삼천동 지역에 개소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쇄나 실직으로 갈 곳이 없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가 전주 삼천동에 마련된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다음 달 삼천동 지역(완산구 석곡개로 196-154)에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 쉼터' 문을 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시 숙식을 제공하고자 조성되는 이 쉼터는 남·여 분리가 가능한 방 3개와 화장실 2개, 식당 등이 갖춰진다.

쉼터에서는 임시 숙식뿐만 아니라 통·번역 서비스와 법무부와 연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법률이나 노무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전주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정 사유로 인해 임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쉼터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사)착한벗들을 선정했다. (사)착한벗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제과제빵 기능사 취득반, 바리스타 취득반, 한국어교실 운영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펼쳐온 단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통해 지역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지역주민의 복지 또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82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외국인 노동자 1만1096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와 인접한 군산, 익산, 완주에는 5665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유치

전주시, 입지결정위원회 심사서 유치지 최종 확정

전주시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사·간병, 방문요양, 노무 컨설팅 등 전 생애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최근 전북도가 주관한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입지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유치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도내 다른 시·군과의 비교 평가에서 접근성과 편의성, 인적자원, 지자체 추진의지 등 심사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유치에 성공했다.

도 산하기관으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돌봄 기능을 갖춘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위탁받아 관련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그간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가사간병,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케어센터도 가동한다. 또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유아동 덕진보건소 인근에 있는 입주 예정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을 한 뒤 올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구축되면 인근 덕진보건소와 장애인고용공단, 유아동 주민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안지원 병원, 홈플러스 등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통합돌봄 선도도시인 전주시는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면서 "국공립시설 위탁 추진 등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공익법인으로, 지난 2019년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만 6세 미만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장애 정도 심한 가구에 돌봄서비스 지원

전주시가 장애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만 6세 미만 심한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의 협력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만 6세 미만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심한 장애아가 속해 있는 전주지역 32개 가구로, 임시보육과 놀이 활동, 식사·간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우선 지자체 부담 70%, 이용자가 부담 30%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이용자의 자부담을 줄여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유화학교,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영유아 돌봄 시설과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 돌봄 시설 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아동들을 위한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 운영 ▲장애아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시범 운영 ▲지역아동센터 장애아전담 전환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빈틈없는 장애아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초고령사회 대비 담당자 교육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감사 초청 강연

전주시는 13일 시청 강당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대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감사로 초청돼 '한국의 인구변화와 고령사회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저출생 추이 ▲출산율과 세대 간 인구변화 ▲향후 고령화 추이 ▲의료비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육아휴직 수당, 영아수당, 첫만남푸러미,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등의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의의와 필요성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21개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생·고령화의 속도를 낮추고 가족친화·



전주시는 13일 시청 강당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대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육아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교육을 했다.

이준배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에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